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4장 다같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창세기 4장 9절 인도자

설 교 “더불어 사는 삶”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지진으로 고통 받는 튀르키예(터키)에 긍휼을 베푸소서.
3. 겨울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사는 삶

창세기 4:9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이다. 지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생태계 위기, 미국 고금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모든 것이 당장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운명체다. 한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지구촌 전체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동남아 맹그로브 숲 반딧불이는 동시에 빛을 발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암컷에게 전달할 확률을 3%에서 82%로 높이고 짝짓기 성공률도 79%로 상승시킨다. 개인이 홀로 하면 성공률이 낮은 반면, 같이 하면 성공률은 높아진다. 내 잠재력은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에 보면, 사람들에게 두 개의 산이 있다. 첫 번째 산은 자신이나 사회가 설정한 통상적인 목표다. 그런데 첫 번째 산의 정상에 올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두 번째 산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직업, 가정, 믿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이다. 우리는 초개인주의와 능력주의에서 관계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 관계주의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만 나는 무언인가를 소유하며, 나를 잃어버릴 때 나를 찾고, 위대한 무언인가에 굴복할 때 나는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 외부의 것에 헌신해야 한다. 그 헌신은 대략 4가지다. 직업(소명), 배우자나 가족(친밀감), 신앙생활, 공동체. 헌신은 목적의식을 가져다주며,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루트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는 곳에서 나도 눈을 감고, 어머니 곁에 묻히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정신을 구현했다. ▶ 존 스타인벡은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의 이야기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라고 말했다. 우리는 융졸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인의 후예다. 둘만 모이면 동료 의식보다는 경쟁의식, 비교 의식, 서열 다툼, 우월의식을 가진다. ‘함께 사는 기술’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고 ‘함께 죽는 기술’ ‘너 죽고 나만 사는 기술’을 연마하며 살고 있다. 나발이나 심지어 다윗이 아닌 아버가일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더 친밀해야 할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싸운다. 가인 같은 사람은 자존심은 강한 반면에 자존감은 낮다. 가인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 ▶ 사도행전에는 두 아나니아가 등장한다.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는 진실함보다는 겉치레, 과시,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위장된 헌신으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말쑥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다가갔고, 편견 없이 형제로 받아들였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첫 번째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를 격려하고 교회에 소개하여 일원이 되게 했다. 사람은 모여야 활활 타오른다.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삶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 교회를 보는 관점도 동일해야 한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 하지 말고 소속하여 사랑하고 헌신할 교회를 찾아라.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다.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는 없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섬기자. 그리고 함께 나누자. 인생이란 함께 집을 짓는 것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모두 자연을 지키는 지킴이, 형제를 돌보는 도우미, 나라를 보위하는 애국자가 되자.